

하늘사랑

2016. March

3

www.kma.go.kr Vol. 417

—
세계 기상의 날 특집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의 대응으로
지속가능한 미래 대비

—
정책 클로즈업
에어로졸 라이다 공동 활용으로
학·연·관 협업을 일구다!

—
열린마당
봄바람 타고 김포공항으로



기상청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공공재정 부정수급 10대 분야 집중 신고기간 운영

● **운영기간** 2016.2.1. ~ 4.30.

● **신고상담** 전국 국번 없이 ☎110

● **신고접수**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 홈페이지 : www.acrc.go.kr

* 국민신문고 : www.epeople.go.kr

* 팩스 번호 : (02)2110-0678

* 우편·방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605호

* 스마트폰 앱 : 부패·공익신고 앱

● **신고대상** 부정수급 10대 분야

① 복지분야(사무장병원·요양급여·어린이집 보조금 등) 부정수급

② 연구 및 기술개발분야 부정수급

③ 농·축·임업 분야 부정수급

④ 교통분야(버스보조금·유기보조금 등) 부정수급

⑤ 교육분야(국·공립 사립대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⑥ 체육분야(체육단체 보조금) 부정수급

⑦ 문화예술분야(콘텐츠산업 육성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⑧ 노동분야(직업능력개발·실업급여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⑨ 산업분야(중소기업창업·벤처육성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⑩ 기타분야(환경·해양수산 등 보조금) 부정수급



하늘사랑

2016 March Vol.417

2016년 3월호(통권 417호)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전화 (02)2181-0360
 팩스 (02)836-5472 E-mail kmanews@korea.kr 발행처 기상청
 발행일자 2016년 3월 10일 발간등록번호 11-1360000-000079-06
 발행인 고윤화 편집장 정현숙 편집기획 대변인실 김성수 조아라
 디자인/인쇄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KMA Special Issue

- 기상의 날 특징
세계 기상의 날 메시지 · 02
- 정책 클로즈업
에어로졸 라이더 공동 활용으로
학·연·관 협업을 일구다! · 04
- 해외동향
노르웨이, 전지구 기후 민감도 지도 제작 외 · 06
- Clean KMA
함께하는 기상청 공무원 행동강령! · 08

KMA About

- 열린마당
봄바람 타고 김포공항으로 · 10
아직 끝나지 않을 나의 도전
국가기상위성센터를 만나다 · 12
내일 어떻게 할까? 내일 어떻게 될까? · 14
한-중 황사공동관측망 장비검사를 다녀와서 · 16
살의 여유를 위한 즐거운 일탈, 명륜극장 · 18
후쿠오카에 반하다 · 20

KMA 날씨 +

- 날씨 + 건강 환절기 비염 예방법! · 22
- 날씨 + 24절기 경칩(驚蟄) · 23
- 날씨 + Story 눈이 시릴 만큼 아름다운 소백산 산행기 · 24
- 날씨 + 사진 봄의 불청객, 황사 · 26
- 날씨 + 기록 30년 전 쓰인,
생활기상방송 원고를 아시나요? · 28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KMA Report

- 월간기상정보 · 29
- 포토 브리핑 · 30
- 독자 마당 · 32

3 March



05



17



24



기상청에서 발행한 「하늘사랑」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출처표시·상업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상업적인 목적이나 변형하여 이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또한 사진, 일러스트, 만화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공공누리'는 공공기관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입니다. www.kogil.or.kr

세계 기상의 날 메시지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의 대응으로 지속가능한 미래 대비



세계기상기구 사무총장
페트리 탈라스
Secretary-General
Petteri Taalas

기후변화는 자연환경은 물론, 인간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하층 대기과 바다의 온도 역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지구 온도는 20세기 초와 비교했을 때 이미 1°C나 상승한 상황입니다. 국제사회에서는 더욱 강력한 행동이 필요한 때임을 입을 모아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의 채택을 통해 각국 정부는 지구 기온의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C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온도 상승은 1.5°C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에 합의했습니다.

이는 대단히 야심찬 다짐입니다. 현재까지 세계 각국이 채택한 정부 계획으로는 3°C 상승을 피하기도 충분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미래에 대응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이 있습니다.



세계기상기구(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WMO)와 국가기상 수문관서는 기후에 강한 사회(climate-resilient societies) 건설을 위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배출한 온실가스의 영향으로 미래에는 이상고온 현상과 열대야 등이 심화될 것이며, 우리는 이러한 앞날에 대비해야만 합니다. 이는 공중보건 문제에도 영향을 미쳐 우리 사회에 압박을 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고온으로 인한 질병 발생 위험은 다중재해 조기경보 시스템을 통해 의사결정권자와 보건 서비스 및 공공 서비스 담당자에게 필요한 경보를 제때에 제공하여 경감할 수 있습니다.

가뭄 역시 통합가뭄관리를 통해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의사결정권자에게 토지관리 전략 및 효과적 정책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의 임무입니다. 또한, 가뭄 해결에 필요한 과학적 지식을 접할 수 있는 통로를 개선하고 모범사례 등을 공유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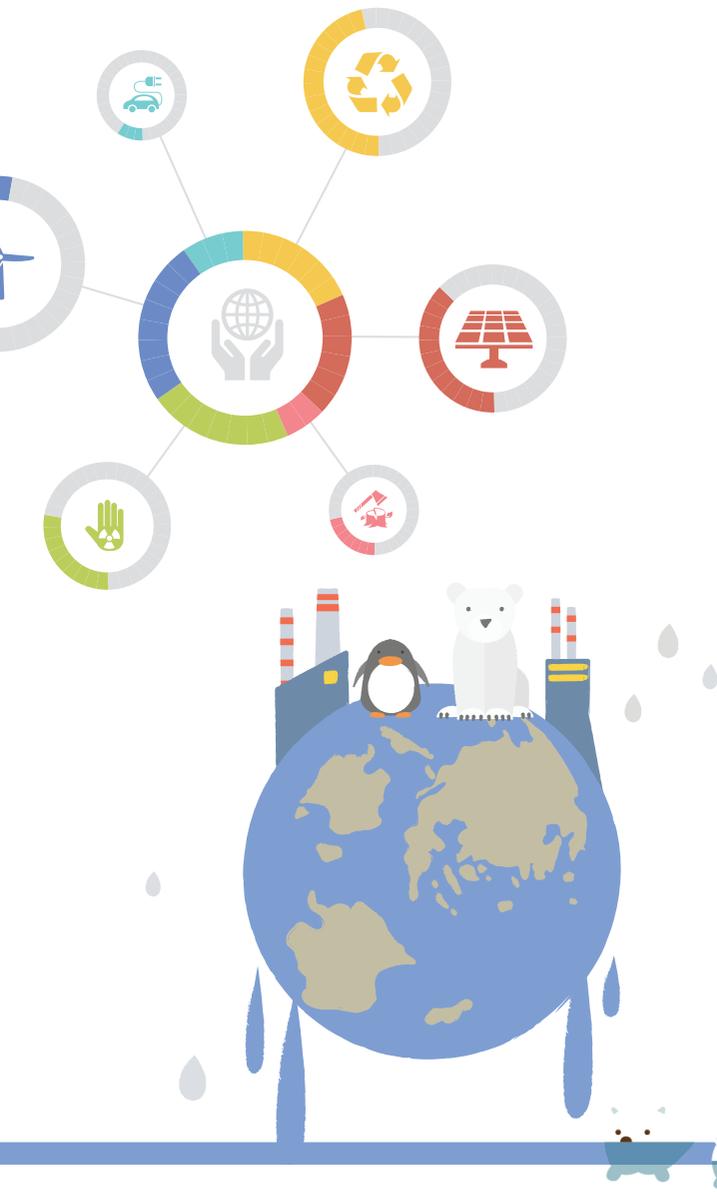
기후변화는 폭우와 홍수의 발생 위험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들 재해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는 영향기반예보를 통해 줄일 수 있습니다. 재난 위험에 대해 영향기반예보라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면, 방재담당자는 원하는 정보를 가지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엔 2030 의제(UN Agenda 2030)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는 '빈곤 퇴치'이며, 이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여기에는 인류를 위한 식량 안보와 식수 및 위생시설 관리 개선을 위해 매진하겠다는 의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청정에너지와 '기상·기후 재해에 강한 사회'가 필요합니다. 자연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관리 역시 촉진되어야 합니다.

'기상·기후 재해에 강한 사회' 건설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글로벌 전략의 핵심입니다.

세계기상기구는 앞으로도 기상, 기후, 수문, 해양, 환경에 관한 최상의 과학 정보와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 기후변화 해결을 위해 매진하는 전 세계 많은 국가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에어로졸 라이다 공동 활용으로 학·연·관 협업을 일구다!

기후변화감시과



가끔 건강을 위해 제철과일을 먹으라는 뉴스를 볼 때면 ‘요즘 제철이라는 게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마트 진열대에 수북이 쌓인 바나나는 수입 과일이라는 생각을 종종 잊어버리기도 한다. 그리고 제철을 잊은 또 하나의 뉴스가 있다. 계절과 상관없이 흔해진 미세먼지 관련 뉴스이다. 중국발 미세먼지는 어느새 우리나라에서 흔한 기상현상 중 하나가 되어 버렸다.

에어로졸과 에어로졸 라이다

황사를 포함하여, 미세먼지, 안개, 연기, 화산재 등 대기 중에 떠있는 고체나 액체입자들을 가리켜 에어로졸이라고 부른다. 에어로졸은 태양에너지를 흡수하고 산란하면서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끼친다. 이 때문에 에어로졸 관측은 온실가스와 더불어 기후변화감시에서 중요한 한 부분으로 여겨지고 있다.

에어로졸은 한 지역에서 국지적으로 발생하고 사라지기도 하지만, 황사처럼 다른 나라로부터 이동해 오기도 한다. 이를 관측하기 위해서는 지상에서부터 상층까지의 에어로졸 분포를 관측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에어로졸 라이다는 대기 중으로 레이저 빔을 쏘아 구름이나 에어로졸에 부딪혀 되돌아오는 빛의 세기를 분석하여 황사, 미세먼지, 연무가 있을 경우 이를 고도별로 분포를 산출할 수 있는 고성능 장비이다.

에어로졸 라이다 현황

우리나라 곳곳에 에어로졸 라이다를 설치하면 에어로졸의 공간적인 분포를 파악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에어로졸의 기후변화 영향 및 황사와 미세먼지 예보 등 관련 정책에 활용할 수 있다. 기후변화감시과는 대기 중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에어로졸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중국으로부터 넘어오는 에어로졸 감시를 위해 2010년 안면도 기후변화감시소에 에어로졸 라이다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대당 수억 원대의 넘는 고가에다 담당자가 상주하여 관리해야하는 까다로움 때문에 기상청(국립기상과학원)에서도 단 2대만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다행히도 미세먼지예보를 담당하는 국립환경과학원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도 각 1대씩 운영하고 있고, 일부 대학에서도 비록 활용도가 그리 높지 않지만 에어로졸 라이다를 연구용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파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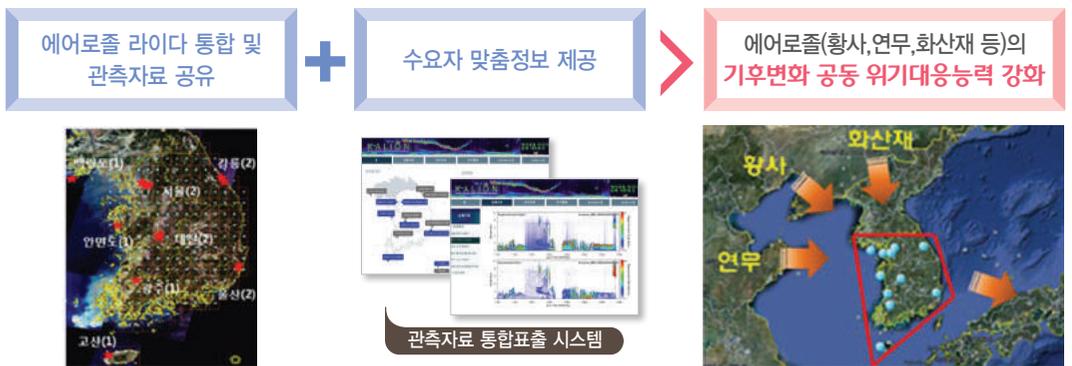
이 점에 착안하여, 2015년 3월, 국립환경과학원,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광주과학기술원, 강릉원주대학교, 목원대학교, 서울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 한밭대학교 등 9개 기관이 모여 에어로졸 라이다 관측자료를 통합하고, 관련 기술을 공유하기 위한 협의회를 결성하여, 한반도 에어로졸 라이다 관측 네트워크(KALION: Korea Aerosol Lidar Observation Network)라고 이름 지었다.



KALION의 협업과 시너지

이후 작년 8월에는 KALION 워크숍을, 12월에는 관측 기술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각자의 노하우를 품앗이하기도 하였다. 특히 대학교수들의 참여로 자료처리 프로그래밍과 분석방법 등 수준 높은 강의를 진행되었다. 각 기관이 가진 장비는 1~2대에 불과하지만, 협업을 통해 12개 지점의 관측자료를 공동 활용하면서 예산도 절약하고 시너지효과를 내고 있다. 정부는 관측자료와 이를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대학과 연구기관은 관측·분석하는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이를 다시 정부가 예보와 정책에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KALION의 협업으로 산출된 고도별 에어로졸 분포 자료는 KALION 누리집(www.kalion.kr)을 통하여 실시간 서비스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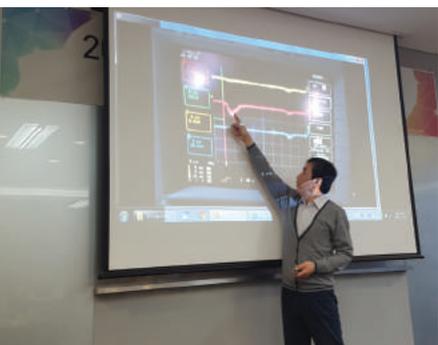
KALION 운영



KALION의 향후 계획

올해 KALION은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다. 세계기상기구 지구대기감시프로그램 에어로졸 분야의 과학자문그룹 (SAG) 연례회의를 유치하여, 6월 한국에서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지난 12월에 시범적으로 운영하였던 교육과정은 기상청 교육훈련프로그램(에어로졸 입체감시자료 분석과정)으로 신설되었다. 하반기에는 우리나라의 에어로졸 분포를 3차원으로 분석한 자료를 새로이 서비스할 예정이다.

학·연·관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KALION'은 에어로졸이 우리나라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황사와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를 높이는데 활용될 것이다. 협업을 통하여, 대학에서는 우수한 논문이 더 많이 게재되고, 기상청은 에어로졸의 기후변화영향 분석 및 황사예보의 정확도가 높아지고, 다른 정부기관에서도 지금보다 더 좋은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서비스되길 기대해본다.





VSI 결과 도출된 전지구 지도

NORWAY

노르웨이, 전지구 기후 민감도 지도 제작

베르겐(Bergen) 대학교 생물학과의 연구자 Alistair Sedden은 “우리는 2000~2013년까지 14년간의 위성자료를 활용하여 기후변화에 매우 민감하고 취약한 지역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였으며, 이 연구 결과는 과학잡지 네이처(Nature)에 게재되었다. 연구진의 접근법은 월간 단위의 식물 생산성에 대한 기후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었고, 이를 통해 전지구 생태계에 대한 기후 민감도를 알 수 있었다.

Sedden은 “우리는 북극 툰드라, 북반구의 삼림지대, 열대우림, 전 세계의 산악 지역, 유럽동남부와 시베리아의 스텝지대, 중앙아시아와 남·북 아메리카의 대초원지대, 남아메리카 숲 지대, 호주 동부지역 등 기후 변동성에 생태학적으로 민감한 지역을 발견하였다.” 라고 말했다.

연구진이 개발한 측정기준은 식물민감지수(Vegetation Sensitivity Index; VSI)로서, 기후변화에 대한 정량적인 반응도와 단기 기후 아노말리(예를 들면 평균보다 따뜻한 6월, 더 추운 12월, 흐린 9월 등)에 대한 생태계의 민감도를 나타낸다. VSI는 생태계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기 위한 이전의 방법을 보완하고, 전지구 규모의 생태계 상태를 평가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출처: <http://www.eurekalert.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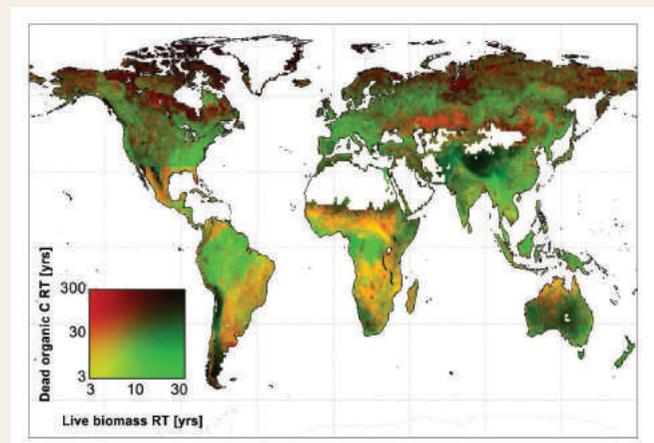
NASA, 기후예측을 돕기 위한 탄소 교환 지도

유럽, 네덜란드의 대학과 미국의 연구진은 기후변화 영향예측을 개선하기 위해 미국항공우주국(NASA)의 10년간 위성자료와 지상 관측자료를 분석하여 전 지구 육상에서의 탄소교환지도를 제작하였다. 연구진은 NASA의 Terra, Aqua, ICESat 위성에서 얻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의 식생과 화재 활동 관련 산출물을 이용하여 탄소가 어디에, 얼마나 오랫동안 식물, 나무, 토양에 저장되는지를 나타내는 지도를 제작하였다.

지도는 지구 전역에서 잎, 뿌리, 나무의 생물학적 자산이 탄소 저장 능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나타내며, 특정 생태계에서는 탄소가 더 오랫동안 저장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건조한 열대 지역에서는 잦은 화재 때문에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 탄소가 저장되는 반면, 온난하고 습한 지역에서는 토양보다 식물에서 탄소가 더 오래 저장된다.

현재 지구 생태계에서 이산화탄소의 흡수·순환 과정은 잘 알려져 있지만, 탄소가 어디에 얼마나 오래 저장되는지에 대한 이해는 부족한 실정이다. 새로운 위성기반 탄소 교환 지도는 탄소 균형이 기후변화와 인간 활동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연구진에 따르면, 산불과 같은 현상이 생태계의 탄소저장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발생 후 3개월 안에 반영될 것이다.

출처: <http://www.jpl.nasa.gov>





CHINA

중국, 기상예보 운영시스템 완료 계획

중국기상청(CMA)은 예보 정확도와 정교화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난 1월 26일에 '현대기상예보업무발전계획(2016~2020)'을 발간했다. CMA는 매끄럽고 집약적인 예보시스템을 포함한 현대기상예보운영시스템, 고해상도 수치모델을 핵심으로 한 선진 기술시스템, 고품질의 혁신적인 관리 시스템, 표준화되고 과학적인 운영체계 구축을 5년 안에 완성할 계획이다. 목표달성을 위해 22개의 주요 업무와 3개의 주요 프로젝트를 포함한 다섯 가지 측면에 따라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매끄럽고 집중적인 예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기상학적 부서는 정교화된 예보 운영을 구성하고 단기 예·경보, 주요 기상현상 예측, 재해 및 기후현상 예보, 산업기상 예보, 전지구 예보, 기상영향예보, 재해위험예보 등을 향상시키고 실시간 평가 운영을 강화시켜야 한다.

또한, 기술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국가 기상과학기술 프로그램 신뢰, 수치예보의 핵심 기술 개발, 멀티소스 융합 경보 기술 발달, 통계적 해석 기술 향상, 앙상블 예보의 응용 기술 완성을 위해 힘써야 한다.

더불어, 개방·공유 플랫폼을 만들고 예보관들의 협력을 고취시키기 위한 혁신적인 시스템과 표준화된 운영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http://www.cma.gov.cn>



UNITED KINGDOM

영국, 기후변화와 항공권 가격 상승

현재 런던에서 뉴욕까지 비행시간은 7시간 30분 정도다. 그런데 새로운 연구결과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비행시간도 더 길어질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산화탄소량이 2배가 되면, 영국과 미국 간의 비행시간이 8.6~15.3% 정도 더 길어진다. 영국 Reading 대학교의 기후학자 Paul Williams박사는 대서양을 건너는 비행기들의 체공시간이 매년 2,000시간 더 길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높은 하늘의 바람과 온도는 서로 상관관계가 크기 때문에, 기온이 변화하면 바람도 그에 따라 변한다. 새 연구에서는 런던과 뉴욕 사이의 비행로에서 기후변화로 인해 제트 기류가 더 강해진다는 것을 밝혀냈다." 고 말했다.

바람이 더 강해지면 동부 방향으로의 비행시간은 길어지지만, 뉴욕에서 런던으로 비행하는 것은 조금 빨라진다. NBC뉴스에서는 결과적으로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왕복 여행 시 총 비행시간은 현재보다 1분 18초 더 길어진다고 보도했다.

연구진은 대서양을 횡단하는 항공편이 매우 많기 때문에, 연료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이 계속 증가하여 기후변화의 영향을 높일 것이고, 이는 결국 항공권 가격을 상승시킬 수도 있다고 추정했다.

출처: <http://www.valuewalk.com>





함께하는 기상청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직무관련자나 직무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식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공무원은 어느 범위까지 이러한 행위가 허용될까요? 이번 호에서는 기상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14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 ① 공무원은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2. 직무수행 과정에서 부득이한 경우에 3만 원 이내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간소한 식사와 통신·교통 등의 편의(예보사업의 지도·검사, 기상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은 제외)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6.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한 공식적인 행사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받는 꽃·기념품 등 간소한 선물
- ② 공무원은 직무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3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간소한 선물
 3.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4.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 격려, 포상 등 사기를 높일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 ③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였던 자나 직무 관련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부터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④ 공무원은 배우자나 직계존속·비속이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제14조의2에 따라 제공이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 공직유관단체 등에 비용을 부담하게 하거나 전가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⑥ 공무원은 체육대회,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행사, 동호인 활동 등 기상청이 지원하는 행사를 진행하면서 직무 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협찬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향응 등의 수수행위 금지
- 예외 인정
 - 직무수행 과정에서 부득이한 경우에 3만 원 이내에서 제공되는 간소한 식사와 통신·교통 등의 편의
 - 공식행사에서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숙박, 음식물 등
 -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 직무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금품을 받는 행위 또는 주는 행위 금지
 - 3만 원 이하의 선물,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은 예외
-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 공직 유관단체 등에 비용을 부담하게 하거나 전가하는 행위 금지
- 기상청 행사 진행 시 직무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한 협찬 요구 금지

Q&A ?!

1 여러 부하공무원들이 각축하여 새로 부임하는 과장에게 30만 원 상당의 축하 선물을 할 수 있나요?

기상청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에서는 직무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3만 원 한도 안에서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소액의 선물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무 관련 공무원인 부하 공무원들 여러 사람이 모여서 상급자에게 주는 경우도 상급 공무원 입장에서 선물수수 허용한도를 초과하므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직무 관련성이 없는 자들로부터의 선물 수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2 포럼에 참석하였고 포럼이 끝난 후 저녁 식사를 하면서 경품추첨이 있었습니다. 참가자 전원이 가위바위보를 해서 최종 이기는 사람에게 경품이 돌아가는데 받아도 될까요?

참가자가 공무원 외에도 다양하고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참가자에게 경품을 주는 경우라면 정당한 권원에 의한 금품(제1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어 수수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추첨의 형식만 빌릴 뿐 사실상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성격이 짙은 경우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공무원이 퇴직·전출 시 전별금을 거두어 줄 수 있을까요?

공무원이 퇴직·전출 시 전별금을 주기 위하여 직무 관련 공무원 또는 관내 직무 관련 업체 등으로부터 금전을 각출 또는 모금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단, 직원상조회 회칙 등의 규정에 따라 공식적으로 제공되는 전별금이나 동료직원이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안에서 제공하는 소액(3만 원 이내)의 선물은 허용됩니다.

4 행동강령의 금품도 대가성 여부를 따져서 판단을 하나요?

직무관련자로부터 수수한 금품의 경우 해당 금품의 제공 목적 또는 성격(대가성)은 위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5 직무관련자로부터 매일 2만 원 정도의 식사를 대접받는 경우 등 1회당 상한선 금액을 준수한다면 상습적으로 접대를 받아도 무방할까요?

상한선은 직무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며, 허용되지 않는 식사인 경우 3만 원 이내일지라도 위반입니다. 따라서 직무와 무관하게 직무 관련자를 만나서 식사를 제공받는 것은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사항입니다.

6 공사 준공식 등을 기념하기 위하여 직무 관련 업체에서 제공하는 기념품도 받을 수 있을까요?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는 일반적인 기념 수건, 볼펜 등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공사 감독기관의 간부 등 특정인에게 제공하기 위해 특별하게 주문·구입한 기념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봄바람 타고 김포공항으로

2014년 8월, 항공기상청 소속 청주공항기상실로 첫 발령을 받았다. 청주공항기상실에서 2달간 신규자 교육 이수 후, 군 공항기상실의 통합으로 김해공항기상대로 옮겨 근무를 하게 되었다. 신규자 교육이 끝나자마자 김해공항기상대로 이동하게 되었으니, 나의 첫 근무지는 김해공항이나 다름없었다. 김해공항에서의 내 첫 근무는 좌충우돌이었다.



첫 근무, 벌써 일 년

두 달의 교육 기간 동안 항공기 운항에 관한 기초지식이나 견학, 항공기 종류 등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웠다고 생각했지만, 실제 업무는 달랐다. 관측한 기상전문을 잘못 입력하여 규정 오류로 사유서를 쓸 뻔도 하고, 장비 고장이나 위험기상이 발생했을 때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일을 시작해야 하는지도 몰라 허둥댔던 적도 있었다. 다행히 같이 근무하셨던 직원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가르쳐주셔서 빨리 적응할 수 있었다. 그렇게 1년을 정신없이 보내며 김해공항기상대에서 적응해 나가고 있던 나는 김포공항으로 다시 떠나게 되었다.

시원섭섭한 마음을 뒤로 한 채 부산에서 김포로!

1년간 정들었던 김해공항을 떠나는 것은 아쉬웠다. 고향인 부산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간다는 점도 한몫했던 것 같다. '좀 더 잘할 수 있었고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는데…….' 라는 아쉬움을 뒤로 한 채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김포공항기상대에 도착했다.

국내선 청사 안에 위치해 있던 김해공항기상대와는 달리 김포공항기상대는 사무실이 비행기 계류장 근처에 위치해 있어 비행기를 바로 눈 앞에서 볼 수 있고 활주로가 훤히 다 보인다는 점이 새로웠다. 김포공항에서는 일주일 간 관측을 비롯하여 근처 지형 특성 등 다양한 내용을 새로 배웠다. 전 근무지 김해공항기상대는 6개의 군기상대(광주, 사



최지수
김포공항기상대



천, 김해, 청주, 대구, 포항)와 협조하여 군에서 생산하는 관측, 예보, 특보 등을 제공받아 통보해주는 곳으로 직접 관측을 한 적이 없었다. 그러다 보니 관측은 처음이나 다름없어 꼭 1년 전으로 돌아가 신규교육을 받는 기분이 들기도 했다.

날씨는 근무자를 배려하지 않는다

실제 관측업무를 시작하고 며칠 되지 않아 뇌전, 강풍과 같은 위험기상을 접하게 되었다. 관측에 익숙해지고 난 뒤 천천히 마주하길 바랐건만, 늘 그렇듯 날씨는 근무자를 배려하지 않는다. 갑자기 떨어지는 운고나 시정을 보자 정말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다. 시시각각 변하는 기상현상을 빠르게 파악하면서 규정에 맞는 전문을 입력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다. 같이 근무하던 직원의 도움으로 위험기상을 무사히 넘길 수 있었고 다시 한 번 초심으로 돌아가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을 갖게 된 날이었다. 혹시나 실수할까 하는 마음에 하루하루 긴장하며 근무를 하다 보니 퇴근하고 관사로 돌아오면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지만, 그래도 '오늘 하루도 열심히 일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며 뿌듯해졌다.

새로운 시작, 설렘 반, 기대 반

3월은 꽃이 피는 봄이 시작되는 달이기도 하지만 항공기 운항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는 저시정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달이기도 하다. 돌풍과 뇌우, 저시정이나 황사 등 시작도 하지 않은 위험기상이 두렵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대도 되어 기분이 묘하다. 김포공항기상대는 올해 새로운 건물로 사무실 이전을 준비 중이다. 새롭게 시작될 봄 파릇파릇 피어날 새싹처럼, 새로운 장소,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나도 쑥쑥 성장하길 기대해본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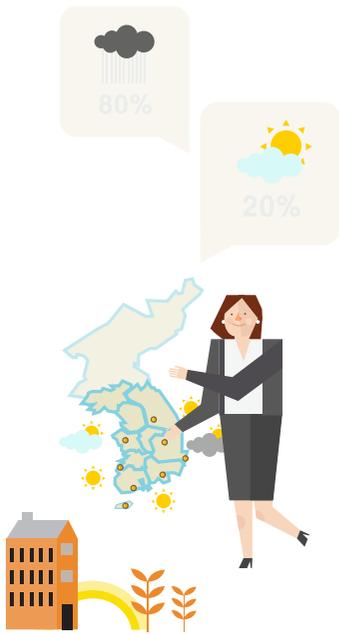




아직 끝나지 않은 나의 도전, 국가기상위성센터를 만나다

2015년 9월 우연한 기회에 만난 국가기상위성센터에서 나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였다. ‘너무 늦었다, 새로 시작하기엔 나이가 많다.’ 라는 편견에 갇혔던 나에게 국가기상위성센터는 용기와 꿈을 주었고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삶의 씨앗이 되었다. 국가기상위성센터와 사랑에 빠진 여주인공, 새내기 연구원의 열정적인 도전과 좌충우돌 성장 과정이 담긴 이 드라마는 앞으로도 계속 쭉~ 방영될 예정이다.

국가기상위성센터와 첫 만남



나이는 올해로 37세, 국어국문학 전공, 초·중등 학원 강사 경력 10년. 그리고 나를 소개할 때 더 언급할 내용이 없다는 것에 의기소침해지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은 과연 무엇인지 무수히 많은 고민과 갈등을 겪고 있던 바로 그때, 운명처럼 국가기상위성센터를 만났다. 남편의 회사 발령으로 우리 가족이 경기도 용인에서 낯선 충북 진천으로 이사를 온 지 6개월이 지날 무렵, 우연히 알게 된 ‘국가기상위성센터 모집 공고’는 내 마음을 설레게 만들었다.

그 당시 내가 즐겨보던 드라마의 내용 중에, 19살 나이에 아기 엄마가 되어 20년 동안 가정주부로 살아온 여주인공이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고 죽기 전에 자기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들을 찾아가는 과정이 있었다. 여주인공이 과거에 이루지 못했던 자신의 꿈을 찾아가는 과정을 보며 감정이입을 하였던 나에게 이 기회는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다가왔다.

설레는 긴장감과 막연한 두려움이 뒤엉킨 마음속에서 혼자 울고 웃으면서도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지원서를 접수하였고 면접시험까지 보게 되었다. 마침내 과감하게 국가기상위성센터의 문을 두드린 나는 ‘연구원 채용 합격’이라는 순조로운 시작을 알리며 드라마 여주인공이 되었다.

국가기상위성센터 그리고 나



이지원
국가기상위성센터

나의 업무는 센터를 방문하신 분들께 국가기상위성센터의 업무와 시설 견학을 담당하며, 위성기획과에서 추진하는 각종 홍보기획 및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그 중, 현장 견학프로그램을 안내하는 것은 강사 경력이 있는 나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점이 많은 업무이다. 학생부터 일반인, 관련 분야 전공자 등 다양한 유형의 방문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센터의 업무와 기상위성을 소개하는 일은 내가 잘 할 수 있고 자신 있는 분야이다.

수줍게 궁금한 내용을 질문하던 대학생의 얼굴, 진지하게 누구보다 열의에 가득 찬 눈빛으로 센터 곳



곳을 꼼꼼하게 살피시던 어르신의 모습, 안내하는 동안 환한 웃음으로 반응하며 즐거움을 나눠 준 외국인들의 모습들은 나에게 잊지 못할 감동과 추억으로 기억될 것이다. 센터 견학을 마치고 돌아가면서 해주시는 감사하다는 인사와 다시 방문하고 싶으시다는 말씀을 들을 때면 내 어깨가 으쓱해지면서 자부심과 함께 보람을 느끼곤 한다.

국가기상위상센터 그리고 긴장감

그러나 강사경력이 있는 나에게도 생소한 기상위성이나 센터의 업무를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센터의 신입 연구원으로서 직장 분위기나 상황을 살피고, 내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고 수행하기에는 다소 힘겨움도 있었다. 특히 견학을 준비하면서는 극도의 긴장감에 잠을 이루지 못한 적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의를 했지만 견학할 때마다 달라지는 방문객들의 성향이나 무반응에 조금은 의기소침해지기도 하였다.

혹시 실수를 하지 않을까 걱정되는 마음에 모의 견학실습도 해 보았고, 방문객이 어떻게 하면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을지 방문객의 입장에서 견학 내용을 준비해보고 점검하는 과정들을 겪으며 이제는 제법 자연스러운 견학 진행 방법과 기술을 익히게 되었다. 물론 아직 홍보 관련 기획이나 업무에서는 더욱 배우고 알아야 할 일들이 많지만 홍보팀의 일원으로서 주어진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 함께 할 국가기상위성센터와 나

지금처럼 내가 센터의 직장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직장동료들의 이해와 배려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미숙한 업무 수행 능력을 가진 나를 너그러운 마음으로 세심하게 이끌어주신 사무관님과 주무관님들, 견학준비를 하면서 갖게 되는 크고 작은 의문들을 남김없이 명쾌하게 설명해 주신 연구관님과 연구사님들, 10살이나 차이나는 후배 연구원에게 다정한 말과 마음을 건네 준 연구원 선배님들이 있었기에 센터의 적응이 수월할 수 있었다.

아침마다 아내의 출근을 도와주는 남편과 국가기상위성센터에서 일하는 엄마를 자랑스러워하는 아이의 든든한 지원을 받으며, 국가기상위성센터로 향하는 나의 발걸음에는 당당함과 에너지가 넘친다. 앞으로 국가기상위성센터에서 나의 인생 드라마는 더욱 행복하고 훈훈한 이야기로 전개될 것이다. 📖



내일 어떻게 할래? 내일 어떻게 될까?

만약 친구가 나에게 “내일 어떻게 할래?” 묻는다면, 별 고민 없이 나는 내일의 계획을 대답할 것이다. “난 오전에 프로젝트 기획안 초안 작성하고 점심때 옆 사무실 동기하고 식사할 거야”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대답을 한다. 그리고 간결하고 확신이 있다. 나의 의지대로 얼마든지 실현 가능한 미래의 일이기 때문이다.

친구가 다시 묻는다. “내일 어떻게 될까?” 나는 별 이상한 놈 다 있네 하며 친구를 본다. “내일 어떻게 될지 내가 어떻게 알아~ 내일이 오면 알겠지!” 대답하는 것이 이상해진다.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을 만한 것이 없다. 내일이라는 미래에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다. 내일 벌어질 일을 어떻게 예상할 수 있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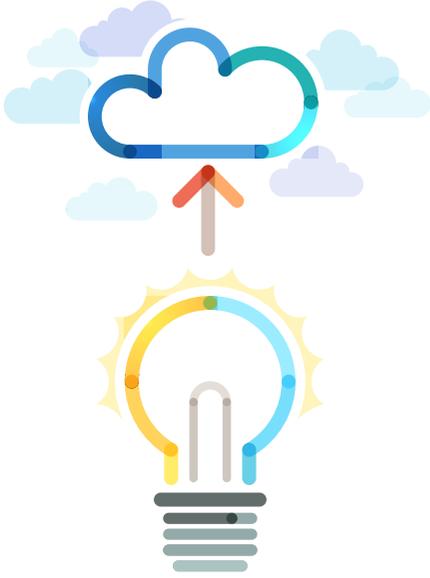
확실한 미래와 불확실한 미래

질문의 끝에 두 개의 글자만 바뀌서 물었는데 대답은 전혀 다르다. 같은 내일이지만 바라보는 시각이 확연하게 달라진다. 첫 질문의 대상은 사람이 조절과 조정이 가능하여 주관과 의지에 의해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미래이다. 분명하게 미래가 그려지고 사람이 끼어들어서 바꿀 수 있는 미래이다.

그러나 후자의 질문은 사람이 어떻게 끼어들 수 없는 미지의 미래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크다. 나의 노력과 행동이 부차적인 것이 되고, 내일 벌어지는 일에 대해 바로바로 대응하면서 지내야 하는 미래이다. 나는 객관적인 사람에 불과하다. 같은 내일의 미래를 놓고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 정반대의 인식을 한다. 하나는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 정도에 따라 바꿀 수 있는 미래, 하나는 지켜보고 바로 그때그때 대응해야 하는 미래이다.



윤기한
수도권기상청



내일 날씨 언제?

기상청에서 날씨를 예보하면서 가끔은 주변 사람들이 첫 번째 질문 형태로 묻는다. “내일 날씨는 언제?” 내일의 날씨가 만들어 제공되는 것처럼 묻는다. 질문 속에는 내일의 날씨를 맘에 들게 만들어서 알려줘 하는 어감도 든다. 나는 성실히 내일의 날씨를 알려주고 결과와 평가를 기다리는 난처한 입장에 처한다. 그렇게 날씨를 알려준 것이 맞으면 당연한 것이 되고, 틀리면 내가 노력을 덜 해서, 성실하지 못해서 틀리게 되는 것이다. 나 또한 예보와 빗나가는 내일이 닥치면 그때 그렇게 판단했어야 했다는 후회와 아쉬움이 가득 밀려온다.

내일 날씨 어떻게 될까?

그러나 실제로 내일의 날씨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미래에 속해 있으면서 흘러오는 자연의 사건들이다. 어떻게 될지 실제로 변수가 많고, 불확실성도 크다. 마치 “내일 어떻게 될까?” 라는 질문에 대답하는 것과 같다. 사람이 끼어들 수가 없고, 사람에 의해서 바뀌지 않는다. 단지 지켜보고 어떻게 될지 분석하고 조사하여 결과를 알려주며, 기다리는 사람이 된다. 미래와 자연이라는 이중의 불확실한 대상을 잠시 엿보고 나름의 과학적인 수단으로 분석하고 알아보는 것이다.

나는 날씨를 만들면서 품질 높은 날씨와 불량품의 날씨를 만들어내는 창조자나 생산자가 아니다. 단지 불확실성이 큰 미래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분석가이자 예측자이다. 그래서 나는 기상예보관이다.☞





한-중 황사공동관측망 장비검사를 다녀와서

차갑고 매서운 겨울 바람이 자취를 감추고 불청객 황사의 계절이 다가왔다. 황사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며 지구 시스템에서 꼭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고는 있지만 사람에게서는 심리적, 신체적으로 위협을 주기도 한다. 기상청에서는 황사예보를 위해 국내 황사관측망뿐만 아니라 중국 현지에도 황사관측망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도 본격적인 황사가 시작되기 전에 10개 관측소에 다녀왔다.

한·중 황사공동관측망, 황사 예보를 위한 필수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국제협력단의 자금 지원을 받아 중국기상국과 공동으로 구축, 운영 중인 '한·중 황사공동관측망(10개소)'의 실시간 자료는 정량적 황사 예보를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자료 중 하나이다. 이 자료의 품질확인을 위해 모든 장비 구축이 완료된 2007년부터 매년 중국 현지 관측소를 방문해 장비 정도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2004년에 구축 완료된 1차 '한·중 황사공동관측소(쥬리허, 다렌, 후이민, 유스, 톡랴오)'의 황사 관측 장비(TEOM1400a, Thermo Scientific)는 12년째 쉬지 않고 운영 중이다. 먼지가 많은 열악한 환경에 있는 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장애 빈도가 높아지며, 우리 기상청뿐만 아니라 중국기상국에서도 결측에 대비한 예비 장비 확보를 지속적으로 원하고 있었다.

한국국제협력단과 중국기상국의 협약 체결

그러던 중 2014년에 한국국제협력단에서 중국에 미세먼지 관측망을 확보하고자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기상청은 기존 '한·중 황사공동관측' 시설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여, 작년 11월에 한국국제협력단과 중국기상국은 '중국 황사·미세먼지 관측망 운영 및 대처기술 역량강화사업'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업 수행의 일환으로 장비 노후화 및 환경 조사를 겸한 장비 검사를 계획하였고, 1월 11일부터 21일까지 11일 동안 5개 관측소에 대한 1차 현장조사를 수행하게 된 것이다.

황사공동관측망 장비 검사를 위해 중국으로 떠나다

나에게 중국 현지 관측소 장비 검사는 다섯 번째이고, 그동안 내몽골과 북동지역에 있는 7개 관측소에 다녀왔다. 이번에 검사할 곳은 내몽골고원, 산시성과 산둥성에 있는 5개 지점이었다. 출발 전 내몽골고원 지역의 최저 기온이 영하 35℃라고 중국기상국 직원으로부터 경고(?)를 받았기에 추위에 어떻게 버틸까



김정은
국립기상과학원

하는 두려움과 더불어 산둥·산시성의 산해진미를 맛볼 수 있다는 기대를 잔뜩 머금고 중국으로 향했다. 첫날은 북경에 들어서 관계자들과 면담을 하고 내몽골자치구 성도인 후허하오터까지 가는 일정이었다. 내몽골에 발을 디디는 순간 추위가 남다르다는 느낌이 들었다. 또한, 공항 내부에는 급격한 온도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옷 갈아입는 부스가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둘째 날 아침에는 얼린하오터 행 비행기를 탔고, 공항에 내려 차를 갈아타고 기온을 확인하니 영하 25℃였다. 차로 이동하는 동안은 건달만하다고 생각했다. 관측지점에 도착하여 관측컨테이너에 올라 장비 검사를 시작하고서야 추위를 실감할 수 있었다. 나름대로 대비를 한다면 세 겹의 바지, 두 겹의 장갑, 모자와 마스크까지 준비했으나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높지도 않은 컨테이너인데 바람이 제법 강해서 5분 이상 견디기 힘들었고, 툼툼이 컨테이너에서 손과 발을 녹이고 따뜻한 차를 마신 후에 다시 나가야 했다. 추위 속에서 무슨 고생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실내에서 하는 작업이 더 많다는 것에 위로를 삼았다. 셋째 날에는 차로 두 시간 거리의 관측소에 방문하여 밤늦게까지 장비 점검을 진행하고 넷째 날에 비행기를 두 차례 탄 후에 처음 겪어보는 무시무시한 추위와 안녕을 고했다.

마지막 지점은 맥주의 도시, 칭다오였다. 칭다오 관측소의 황사관측담당자는 호리호리한 남자분이었는데, 장비며 컨테이너를 항상 최상의 청결 상태로 유지하고 계셨다. 장비도 최상의 상태이고, 내부도 매우 깨끗하여 짧은 시간 내에 점검을 마칠 수 있었다.



뿌듯한 11일간의 일정

11일의 긴 일정도 어느덧 마지막이 눈앞에 있었다. 마지막 검사까지 순조롭게 끝나고 나니 초반의 추위 때문에 고생한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상청과 중국기상국이 공동으로 구축한 10개 현지 관측소를 드디어 모두 방문해보았다는 뿌듯함이 남았다. 더구나 일반인이 가기 어려운 내몽골고원이나 산시성 시골 지점들을 방문한 기회를 얻은 것과, 중국 현지인들로부터 따뜻한 정을 듬뿍 느낄 수 있었던 것은 큰 선물을 받는 것과 다름이 없는 매우 보람된 일정이었다. ☺

컨테이너 옥상에서 흡입관 점검



내몽골고원 주리허 관측소를 배경으로(영하25℃)



삶의 여유를 위한 즐거운 일탈, 명륜극장

‘일탈’이라는 말처럼 우리를 설레게 하는 단어가 또 있을까? 나는 매일 지속되는 업무와 일상 속에 하루하루 활기를 잃어가고 있었다. 최근 들어 회사와 집만을 오가며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나에게 중요한 것을 잠시 잊어버린 채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었다. 그때, ‘명륜극장’이라는 부산지방기상청 영화동호회가 나타났다. 활력 넘치는 삶을 위한 한걸음 한걸음을 명륜극장이 도와주었다.



이송이
부산지방기상청



‘명륜극장’으로 입장하세요!

작년 7월 인사발령으로 기획운영과에 근무하게 되었다. 친해진 직원들과 이야기하다 보니 그분들도 나와 같이 바쁘다는 이유로 여가시간을 잘 보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우리는 “작은 일탈을 해보자!”는 한마디를 시작으로, 소모임을 만들기로 했다. 주말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니 주중에 짬을 내기로 하였고, 가끔 하루는 칼같이 퇴근하여 함께 문화생활을 해보기로 하였다. 처음에 소규모로 모여 부산국제영화제 상영작을 같이 볼 기회가 있었다. 퇴근 후 피곤한 상태에서 영화를 보게 되었지만, 영화를 보고 난 후 그 다음 날까지 그 기분이 이어져 즐거운 한 주를 보내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는 가끔 퇴근 후 시간을 영화를 보며 즐기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그 결과 올해 같이 활동하기를 원하는 인원이 조금 더 늘어나면서 매달 날짜를 정해 놓고 참석이 자유로운 동호회를 만들면 좋을 것 같아 부산지방기상청 영화동호회 ‘명륜극장’을 만들게 되었다.

‘명륜극장’ 첫 상영을 시작하다!

우리의 공식적인 첫 모임은 1월 마지막 주 수요일이었고, 주제는 연극! 대학로에서 유명한 연극인 ‘라이어’의 30주년 기념공연이 있어 회원들과 보러 갔다. 공연도 재미있었지만, 연극 시작부터 끝까지 목이 쉴 정도로 소리를 지르고 땀을 뻘뻘 흘리며 뛰어다니는 연기자들의 열정이 느껴져 나까지 에너지를 받는 느낌이었다. 직접적인 경험도 좋지만, 우리는 이런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고 있다. 앞으로 우리 모임의 활동을 통한 ‘작은 일탈’이 우리 회원님들에게 즐거움을 위한 즐거움보다는 삶에 자극이 되는 ‘의미가 있는 즐거움’을 주었으면 한다.





매·마·수는 문화가 있는 날

우리 동호회의 모임 날짜는 매·마·수! 매주 마지막 주 수요일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융성위원회는 2014년부터 더욱 쉽고 다양한 문화시설을 즐길 수 있도록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하여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이날은 영화관, 공연장, 프레스포츠경기장, 미술관, 박물관 및 고궁 등에서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최근 통계에 따르면 아직 직장인 10명 중 6명이 문화의 날에 혜택을 이용한 경험이 없으며 평일에 문화생활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응답이 많았다고 발표했다. 정보를 알고도 이렇듯 특별한 활동을 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나는 여유와 원동력이 없더라도 조금은 무리해서 문화가 있는 날을 즐기면 매달 마지막 주를 기다리며 즐거운 직장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2016년은 나를 채울 수 있는 해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같은 기상대의 선배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즘엔 자주 떠오른다. "사람은 쏟아내지만 하면서는 살 수 없어, 쏟아내면 나를 다시 채우는 시간을 가져야 해."라고 하셨는데, 그때 당시엔 '아 멋있다~'라는 생각뿐이었는데, 최근 들어서야 삶의 에너지든 지식이든 다시 나를 채울 때가 온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올 한 해는 그동안 나의 삶에서 어떠한 가치든 소홀했었는지, 내가 편식을 하고 있었는지 돌아보고 균형 있게 나를 채우고 성장하는 한 해로 만들 예정이다.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해줄 우리 명륜극장 모임도 누구나 함께 하고 싶어 하는 모임으로 만들 것이다. 📖



후쿠오카에 반하다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김해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40분 만에 도착한 일본 후쿠오카는 우리나라에서 정말 가까운 도시였다. 이렇게 가까운 나라인 일본 여행을 항상 망설임 이유는 역사문제와 방사능이었다. 하지만 올해 설 연휴에는 가족과 함께하는 여행이자 일제강점기를 살아오신 할아버지의 생애 마지막 소원 중 하나 이기에 망설임 없이 일본으로 떠날 수 있었다.



문화정
광주지방기상청

이천 년의 역사를 가진 후쿠오카

일본의 4개 섬 중 최남단에 있으며 규슈의 북쪽 해안에 자리 잡고 있는 후쿠오카는 이천 년의 역사를 잘 보존하고 있는 도시이다. 첫 번째 목적지는 구시다 신사로 757년에 세워진 후쿠오카에서 가장 오래된 신사이다. 불로장생과 번성의 신을 모시고 있고 수령 1,000년의 은행나무가 있어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은 곳이다. 하지만 이곳의 역사관은 명성황후 시해에 쓰인 칼이 보관되어 있다. 자객이 참회를 위해 이곳에 바쳤다고 전해지는데 씩씩한 역사가 존재한 곳이라 신사를 둘러보는 내내 마음이 불편했다.

두 번째 목적지는 학문의 신을 모신 다자이후 텐만구이다. 이곳은 일본 헤이안 시대 문인인 스가와라노 미치자네를 모신 곳으로, 학구열이 높은 일본에서도 합격이나 학업 성취를 기원하는 사람들이 합격 부적을 사기 위해 찾는 곳이다. 우리가 방문한 날도 합격을 기원하는 학생들과 참배객들로 붐볐다. 텐만구 입구에는 소 동상이 있는데 이 동상의 머리를 만지면 똑똑해진다는 속설에 오는 사람마다 소머리를 쓰다듬느라 동상이 반질반질하다. 본전으로 가기 위해서는 흥예다리를 건너는데 이 다리는 총 3개로 과거-현재-미래를 상징한다고 전해진다. 일본의 중요문화재로 지정된 본전은 1591년에 세워졌으며 오래되었지



긴린코 호수의 새벽 물안개



유후인 상점가



후쿠오카 타워 앞에서

만 건물은 화려했다. 이 본전 옆에는 매화나무가 있는데, 미치자네가 교토에서 좌천되어 오던 날 매화 나무가 그를 따라 날아와 하룻밤 새 6천 그루나 꽃을 피웠다는 전설을 가지고 있다. 다자이후에 왔다면 맛볼 음식이 있다. 우리나라 찹쌀떡과 비슷한 우메가에모찌란 떡은 매화가지로 만든 떡으로 병마를 물리치고 정신이 맑아진다고 한다.

몸과 마음의 힐링, 유후인 온천마을

일본에 왔다면 온천체험은 빠질 수 없는 코스이다. 후쿠오카에서 약 120km 떨어진 작은 온천마을인 유후인에 도착했을 때 TV에서 보던 일본 시골풍경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다. 마을 곳곳에서 하얗게 피어오르는 연기를 보니 온천마을임을 실감할 수 있었다. 유후인에서의 숙소, 료칸에는 일본전통 가옥인 다다미방과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야외온천이 있었다. 여행의 피곤함을 녹여준 온천체험에 몸과 마음은 저절로 힐링되었다.

유후인 마을의 여행은 걸어서 보고 즐기기에 충분했고, 아기자기한 상점과 거리는 도시와는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었다. 반나절이면 마을을 둘러볼 수 있고, 마을의 마지막 코스는 작은 호수인 긴린코 호수에서 끝을 맺는다. 호수라고 하기에는 작고 소박하지만 새벽에 피어오르는 물안개는 환상적인 풍경을 만들어낸다. 새벽 호수의 물안개를 보기 위해 아침 일찍 분주하게 움직였다. 도착한 긴린코 호수의 물안개는 새벽의 차가운 공기와 온천지대에서 흘러나온 따뜻한 물이 만나 만들어진 자연의 작품이었다.

다시 가고 싶은 후쿠오카

후쿠오카에서 보낸 연휴는 가족과 함께 보낸 여행이자 일본이란 나라를 꼭 가보고 싶어 하셨던 할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 드린 뜻깊은 여행이었다. 일본에 다녀온 후 주변 사람들은 이번 여행은 어땠느냐고 묻는다. 그 질문에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다시 가고 싶은 나라, 배울 점이 많은 나라, 추천하는 여행지라고 답하곤 한다. 물론 역사의 아픔은 존재하지만, 일본의 문화에서 배울 점은 많다고 생각한다. 특히 교통법규를 잘 지키며 운전자에 대한 배려가 깊은 문화는 선진국임이 분명했다. 또한, 깨끗한 거리, 외국인에 대한 친절함,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배려심 등은 우리도 다시금 생각해보고 배워야 할 점이 아닐까 싶다.☺



다자이후 매화

다자이후 텐만구



구시다 신사



환절기 비염 예방법!

환절기가 되면 콧물, 재채기 증상을 호소하는 비염 환자가 늘어난다. 비염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발병하면 일상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질환 중 하나이다. 비염의 3대 증상은 콧물, 코막힘, 재채기이고, 그 외 가려움증도 동반된다. 아침이 일어날 때 이 세 가지 증상이 모두 있으면 심한 상태이고 한 두 가지가 있으면 심하지는 않지만 잘 관리해야 한다.



김성준 원장
김한의원



비염의 종류

비염을 한방에서는 3종류로 비구증, 비옹증, 비분증으로 나눈다. '비구증(鼻竊症)'은 찬 공기에 접촉되면 콧물이 나고 코가 막히는 증상이다. 이는 급만성 비염 증상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기온의 급격한 변화나 겨울철 실내외의 기온 차가 큰 곳을 오갈 때, 여름철 더운 실외에서 에어컨이 있는 실내로 들어올 때 주로 나타난다.

'비옹증(鼻癢症)'은 코의 내벽이 부풀어서 생기는 증상이다. 이는 비후성비염에 해당되는 질환으로 폐열이 하강하지 못하므로 울체되어 비점막을 붉게 부풀게 하여 비강이 좁아져서 막히는 경우다. 갑자기 콧속에 가려움을 느끼면서 여러 번 연달아 재채기를 하는 것을 '비분증(鼻噴症)'이라고 한다. 알레르기성 비염에 해당하는 증상으로 봄에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나 황사 또는 미세먼지 그리고 진드기 같은 것이 원인이 된다.

비염 관리에 좋은 차

도라지차

도라지는 한방에서 길경이라고 하는데 호흡기 질환에 우수한 약재이다. 독성이 없고 맛은 약간 쓰고 매운맛이 나며, 폐의 기운을 돕는 좋은 약재이다. 도라지의 껍질을 벗겨 그늘에서 말린 후 11g 정도를 1L의 물에 넣고 600ml로 줄 때까지 끓인 후 하루 세 차례 지속적으로 복용하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도라지차는 폐기(肺氣)를 소통시키고 가래를 삭이는 효능이 있어, 호흡을 하거나 기침을 할 때 기관지에 가래가 많은 증상이 동반된 비염 질환에 사용하면 더욱 좋다.

도꼬마리차

도꼬마리를 한방에서는 창이자라고 하는데, 성질은 따뜻하고 독성이 있으므로 소아나 몸이 약한 분들이 사용할 때에는 조심해야 한다. 맛은 맵고 쓰므로 조금 사용하시는 것이 좋다. 물 300ml에 도꼬마리의 잎, 줄기, 열매를 10g~12g 정도 넣어서 반으로 줄 때까지 끓인 후 조금씩 마시면 된다. 어린아이의 경우 먹기 어려우므로 이물을 면봉에 묻혀서 코에 자주 발라주는 것도 효과가 있다.

도꼬마리는 잎과 열매에는 독이 있으므로 과용을 해서는 안 되며, 비염으로 인해 콧물이 흐르는 증상이 멈추지 않을 경우에는 목련꽃 봉우리(신이화)를 4~8g 배합하여 사용하면 더욱 좋다. 도꼬마리차는 피부, 눈, 코, 등의 부스럼이나 가려움증 등 피부병에도 응용할 수 있다. ❏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경칩(驚蟄)

24절기 중 세 번째 절기(節氣).

계칩(啓蟄)이라고도 한다.

태양의 황경(黃經)이 345도에 이르는 때로

동지 이후 74일째 되는 날이다.

양력으로는 3월 5일 무렵이 된다.

경칩이 되면 삼라만상이 겨울잠을 깬다

경칩은 24절기의 하나로 우수와 춘분 사이에 들어 있다. 겨우내 동면하던 동물이 깨어나고 마른 나무에서는 잎이 돋아나는 시기이며 생명이 약동하는 때이므로, 사람들은 담배모를 심고 과일밭을 가꾸는 것을 비롯하여 본격적으로 농사를 시작한다.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시기로 겨울철의 대륙성 고기압이 약화되고 이동성 고기압과 기압골이 주기적으로 통과하게 되어 한난(寒暖)이 반복된다. 그리하여 기온은 날마다 상승하며 마침내 봄으로 향하게 된다. 『한서(漢書)』에는 열 계(啓)자와 겨울잠을 자는 벌레 칩(蟄)자를 써서 계칩(啓蟄)이라고 기록되었는데, 후에 한(漢) 무제(武帝)의 이름인 계(啓)를 피휘(避諱, 임금의 이름을 피함)하여 놀랄 경(驚)자를 써서 경칩(驚蟄)이라 하였다.

새싹이 돋는 것을 기념하는 경칩

옛사람들은 이 무렵에 첫 번째 천둥이 치고, 그 소리를 들은 벌레들이 땅에서 나온다고 생각했다. 『동의보감』 논일원십이회삼십운(論一元十二會三十運)에는 “동면하던 동물은 음력 정월(寅月)에 활동하기 시작하는데, 절기로는 경칩에 해당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예기(禮記)』 「월령(月令)」에는 “이월에는 식물의 싹을 보호하고 어린 동물을 기르며 고아들을 보살피기른다.”라고 되어 있다. 이는 경칩이 만물이 생동하는 시기이므로 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시기임을 의미한다. 『성종실록(成宗實錄)』에 우수에는 삼밭을 갈고 경칩에는 농기구를 정비하며 춘분에는 올벼를 심는다고 하였듯이, 우수와 경칩은 새싹이 돋는 것을 기념하고 본격적인 농사를 준비하는 중요한 절기이다.

우수 경칩에 대동강 풀린다

우수와 경칩이 지나면 대동강물이 풀린다고 하여 완연한 봄을 느끼게 된다. 초목의 싹이 돋아나고 동면하던 벌레들도 땅속에서 나온다고 믿는다. 이날 농촌에서는 산이나 논이 물이 권 곳을 찾아다니며, 몸이 건강해지기를 바라면서 개구리(또는 도롱뇽) 알을 건져다 먹는다. 우리 가사(歌辭) ‘수심가(愁心歌)’에 “우수 경칩에 대동강이 풀리더니 정든 님 말씀에 요 내 속 풀리누나.” 하는 대목이 있다.

또 경칩에 흙일을 하면 탈이 없다고 하여 벽을 바르거나 담을 쌓기도 했다. 특히 빈대가 없어진다고 하여 일부러 흙벽을 바르기도 한다. 경칩에는 보리 싹의 성장을 보아 그 해 농사를 예측하기도 한다. 이처럼 경칩은 만물이 약동하는 시기로, 움츠려 지냈던 겨울이 끝나고 새로운 생명력이 소생하는 절기이다. 

출처: 국립민속박물관





눈이 시릴 만큼 아름다운 소백산 산행기

따르릉따르릉 새벽 3시. 휴대전화 알람을 비몽사몽 끄고 집 밖을 나오니 한파의 맹위가 대단하다. 겨울철 산행에 가장 중요한 방한복, 귀마개, 장갑, 아이젠으로 완전무장하고 어둠을 헤치며 첫 발걸음을 내디딘다. 문경휴게소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6시에 들머리인 죽령에 도착하니 너무 추워 그냥 집으로 가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온몸이 떨리는 추위는 싫지만 그래도 겨울 산행이 좋은 이유가 있다면 바로 눈꽃과 상고대 때문일 것이다.



이인성
대전지방기상청

풍수의 명당 소백산

소백산은 태백산과 함께 일찍부터 신령시 되어온 산이다. 화재, 수재, 풍재가 들지 않은 산이라 하여 풍수의 명당으로 꼽혀오기도 했다. 소백산의 정상은 비로봉(1,439m)이다. 비로봉에서 국망봉을 지나 백두대간과 연계된 고지령까지가 오늘 산행 여정이다. 비로봉을 향하여 임도를 따라 오르다 보니 산행의 느낌은 적은 편이지만 어둠 속에 남쪽으로는 풍기 북쪽으로는 단양의 불빛이 반짝이고, 일렬종대로 이어지는 랜턴 빛에 눈과 얼음을 밟고 가는 소리가 마치 여름밤의 개구리 합창 같았다.

겨울산행 해프닝

어느덧 제2연화봉에 올라 사진을 찍으려 하는데, 아차! 추위 때문에 카메라 배터리가 빨리 소모되어 작동이 안 된다. 이럴 때는 카메라는 안주머니에 넣어 보온을 해주면 작동이 된다. 실수를 자책하며 연화봉으로 향하는데 다행히 포장도로라 진행이 빠르다. 연화봉에 다가갈수록 점차 날이 밝아 오면서 하얀 눈 속에 우뚝 서 있는 소백산천문대와 강우레이더관측소 건물이 색다른 풍경을 보여준다.

북서풍의 뒷바람을 맞으며 거침없이 비로봉 정상을 향해 오르던 중 주목 감시 초소에 들어가 잠시 몸을 녹인다. 보온병에 가져간 따뜻한 커피로 간단히 몸을 녹이고, 공공 얼어있는 선크림으로 곱게 단장한다. 비로봉의 능선은 고도차 200m 내외의 아름다운 곡선으로 마치 소백산 신령님이 양팔로 나를 안아주는 기분이 든다. 그리고 설원 길을 걸을 때 발끝에 느껴지는 포근함은 겨울산행의 또 다른 묘미이다.

눈이 시릴 만큼 아름다운 순백의 비로봉

온 산하가 하얀색으로 아무 티 하나 없이 순백의 세상이 펼쳐진 모습은 너무 깨끗하다 못해 눈이 시릴 만큼 아름답다. 오늘 산행의 가장 높은 비로봉(1,439m)을 향하여 나무로 만들어진 계단을 따라 벽찬 가슴을 안고 올라간다. 비로는 석가의 진신(眞身)을 높여 부르는 칭호인 비로자나불의 준말이다. 정상석 뒷면에는 서거정의 소백산이라는 예서체 한시가 있다.

“태백산에서 이어진 소백산 백리에 구불구불 구름 사이로 솟았네,
뚜렷이 동남의 경계를 그어 하늘과 땅이 만든 형국의 억척일세”
비로봉 정상에 오르니 소백산의 장쾌한 능선이 나를 맞이해 준다. 비로봉은 큰 나무가 없어 동서남북으로 탁 트인 조망에 가슴이 후련하다. 평상시는 정상에서 장쾌한 능선의 조망을 즐기겠지만, 오늘은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매서운 바람과 강추위가 정신없게 만든다.



국망봉에서 소백산 칼바람을 체험하다

진정한 소백산의 칼바람을 체험할 수 있는 구간은 국망봉으로 가는 길이다. 북서풍을 안고 가야 하므로 걸음은 느리고 볼은 에이는 듯하고 정신은 멍한 채 오로지 땅만 쳐다보고 산행을 한다. 이윽고 도착한 국망봉에서 비로봉 중심으로 해발 1,300m 안팎까지 하얀 눈으로 덮여있는 장중한 능선이 파노라마처럼 눈앞에 펼쳐져 있다. 이곳은 ‘아고산대 초지’로 강한 바람과 낮은 기온으로 나무가 자라지 못하고 넓은 초지가 형성된 곳이다.

이후론 변변한 봉우리가 없어 지루하게 내리막길을 미끄러움을 타듯 내려온다. 다행히 고도가 낮아질수록 바람이 약해지면서 간간히 햇살이 반짝거린다. 그리고 보니 해가 눈에 띄게 길어졌다. 산 정상에서는 눈과 칼바람 때문에 느끼지 못했지만, 코끝에서 미묘하게 봄바람 느낌도 드는 것 같다.

겨울 산행을 마무리하며

이제 곧 봄이니 겨울 산행도 한동안은 안녕이라는 생각을 하니 참 다행인 듯하다. 산행은 현재의 날씨와 체력, 장비의 유무에 따라 매우 다르므로 항상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 산행코스를 정할 때 강풍을 안고 산행할지, 아니면 뒤에서 불어주는 바람을 맞으면서 산행을 할지 결정할 때 기상예보를 잘 이용해야 한다. 특히 이번 산행은 강풍이 변수였던 것 같다. 고치령에서 버스가 있는 좌석리까지 약 4.5km를 내려와 ‘아이고 고생했네.’ 하며 사고 없이 소백산을 종주한 나 자신을 칭찬하며 다음 산행을 위해 젖은 등산화를 정리한다. ☺

기상기후사진전으로 보는 기상현상 봄의 불청객, 황사

황사는 몽골과 중국의 사막 지역, 황하 중류의 황토고원 등에서 강한 바람이나 지형에 의해 만들어진 난류로 인해 다량의 먼지가 공중으로 떠올라 바람을 타고 이동하면서 지표에 천천히 떨어지는 현상이다. 이 같은 먼지현상은 사막이나 건조한 곳에서 잘 나타나며 아시아 대륙에서 생기는 것을 '아시아 먼지(Asian dust)' 아프리카 대륙 북부의 사하라 사막에서 생기는 것을 '사하라 먼지(Saharan dust)'라 부른다.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는 먼지가 떨어지는 현상을 토우(土雨)라 했으며, 국립국어원(1999년)의 『표준국어대사전』에도 '흙비'를 '바람에 날려 올라갔던 모래흙이 비처럼 떨어지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기록된 먼지현상은 삼국사기에 나오는 신라 아달라왕 때(서기 174년)의 '우토(雨土)'라는 기록이다. 그 당시에는 하늘의 신이 화가 나서 비나 눈이 아닌 흙가루를 땅으로 뿌린 것으로 믿어서 먼지현상이 눈앞에 나타나면 왕과 신하들은 몹시 두려워했다고 한다. 조선시대 문헌에도 "한양에 흙비가 내렸다. 전라도의 전주와 남원에는 비가 내린 뒤에 연기 같은 안개가 사방에 꽉 끼었으며, 쓸면 먼지가 되고 흔들면 날아 흩어졌다. 25일까지 쾌청하지 못하였다(명종 5년 3월 22일)."는 기록이 있는데 나흘간 계속되었던 심한 황사 현상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황사는 오래전부터 해마다 봄철 발생하는 현상이었지만, 최근 들어 황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것은 미세먼지와 더불어 중국의 급속한 산업화 때문이다. 중국 공장에서 내뿜는 증기속이 황사와 함께 우리나라로 날아오므로 오늘날 심각한 기상재해로 인식되고 있다. ☞

명사산
울다

2011년 장려 | 홍성률





보기만 해도

2009년 입선 | 최영진

황사눈

2014년 입선 | 박정식



황사

2008년 입선 | 강순녀

“
황사

아득히 먼 곳에서 불어오는
모래바람에 눈을 깜박인다.
눈을 감았다 뜰 때마다
하늘은 오히려 아득해진다.

”

30년 전 지금처럼 컴퓨터 자판이 아닌, 손수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간 정성 가득한 원고가 있다. 유일하게 남아 있는 1985년부터 1월부터 6월까지, 기상청 직원들이 직접 쓴 생활기상방송 원고에는 그 시절의 기상과 문화가 고스란히 녹아 있다. 누렇게 바래버린 종지와 ‘읍니다.’로 쓰인 원고를 읽다 보면 세월의 무게마저 느껴진다. 낡은 원고 속에서 날씨를 국민에게 쉽게 전하기 위한 직원들의 마음과 그 시절만의 날씨 이야기를 지금 만나보자.

30년 전 쓰인, 생활기상방송 원고를 아시나요?



농민들을 위한 못자리 설치시기의 준비활용법을 설명하고 있다. 예전에는 수리시설이 미비하여 불비로 못자리를 해야 했기 때문에 농민들에게는 불비가 매우 중요했다. 옛말에 “불비가 내려 백곡 기름지게 한다.”는 말처럼 예로부터 불비는 한 해 농사를 가능하는 중요한 척도였다. 30년 전에도 국민에게 날씨정보와 함께 다양한 이야기를 전달했던 기상청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진다.



NO 100 환절기 건강관리

봄철에 접어들면서 이동성 고기압이 자주 지나고 기온도 점점 상승하지만 기압배치가 때로는 서고동저형이 되어 가끔 계절풍이 불어 추운대가 있습니다. 요즘은 기온이 약간씩 올라가 포근한 느낌을 받게 되면, 우리는 상급하게 겨울에 입던 두터운 옷을 벗어버려 가볍고 산뜻한 옷으로 갈아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절기에는 이따금씩 계절풍이 불기 때문에 우리는 체온관리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계절풍의 건조한 공기가 불어 오는 날은 우리몸의 습기가 증발해서 감자가 체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쌀쌀한 느낌과 더불어 추움이 으시시해 집니다. 일반적으로 겨울철의 기후 적응에 비해 봄철에 접어들면서 환절기 기후 적응에 오려 방심하기 때문에 감기 환자가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봄철을 맞아 건강관리에 환후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1985. 3. 7 오전

김성진

정성스럽고 정갈하게 쓰인 글씨와 함께, 원고를 읽기 위해 연필로 표시해둔 부분까지 친근한 느낌이 든다.

그때나 지금이나 환절기 감기는 기온이 약간씩 올라갈 무렵 방심한 틈을 타서 오고, 이동성고기압과 계절풍을 설명하며 환절기 건강관리에 특별히 신경 써야 한다는 당부하고 있다.

NO 140 봄비극 관리

지난 25일에 이어 오늘도 전국에 걸쳐서 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고 있으며, 이번비는 중부지방에서는 10mm의 함부지방에서는 좀 많은 15-30mm의 비가 예상 됩니다. - 함부지방에서는 이미 고온 무더위를 시작 할때이며 중부지방도 보온 무더위를 준비할 시기입니다. 우리나라의 봄철 기후는 중국에서 건조한 공기가 유입되며 증발이 많은 반면, 비가 파도 불어는 양이 적어 얇습니다. 그러므로 춘분에서는 못자리 설치 시기에 무더위를 풀 무렵으로 농민들의 마음을 여타게 할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해와 이번 내리는 비는 봄비라고는 많은 양이 내렸으며 5월 1일에는 전국에 걸쳐 비가 조금 올 것 같습니다. * 봄에 조급히 내리는 비도 눈에 관 가두워 무한 못자용으로는 불합리 할수 있으며 예외 겨울에 가두워 둔 저수지의 물을 모서기 불이 쓰면 유용 할것입니다.

1985. 3. 27 오전

장기운

2 February 주요 기상정보 및 이슈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다시 찾아온 추위 • 서울 영하 9℃	2	3	4 맑음	5	6
7	8 포근한 설 연휴	9	10	11 충남 금산 지진 • 규모 3.1 지진 발생	12 전국 많은 비 내려	13
14	15 돌아온 동장군 • 서울 아침 영하 10℃	16 중부 곳곳 함박눈	17	18	19 우우	20
21	22 정월대보름, 구름에 가린 보름달	23	24 제주 해역 규모 2.9 지진 관측 영동 대설특보 • 포항 올진 최대 20cm 눈 폭탄	25 막바지 추위 '기승'	26	27
28	29 전국 찬바람 쌩쌩, 꽃샘추위 기승					

기온변화가 컸던 2월

큰 기온변화



- 이동성 고기압과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번갈아 받아 기온변화가 크게 나타났으며, 전국 평균기온은 1.7℃로 평년(1.1℃)과 비슷하였음
- 11~13일에 남서쪽으로부터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어 기온이 큰 폭으로 올랐으며, 특히 13일에 전국 평균기온이 11.7℃로 평년(1.4℃)보다 10.3℃ 높았음
- 14~15일에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으며, 15일의 전국 평균기온이 -3.1℃로 평년(1.6℃)보다 4.7℃ 낮았음

두 차례 많은 강수량



- 중부 및 남해안지방을 중심으로 강수량이 평년보다 많았으나, 경상북도 동해안지방은 강수량이 평년대비 50% 이하로 적어 지역적인 편차를 보였음
- 남서쪽에서 다가온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12~13일에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렸으며, 저기압이 통과한 후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15~16일에 서해안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렸음
 - 15~16일에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찬 공기가 상대적으로 따뜻한 서해상을 지나면서 만들어진 눈구름이 내륙으로 유입되어 서울·경기와 서해안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렸음
- 서해남부해상에서 다가온 저기압의 영향으로 28일에 전국적으로 눈과 비가 내렸으며, 특히 서울·경기, 강원도, 충청도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렸음
- 동풍의 영향으로 6일에 동해안지방에 많은 눈이 내렸으며, 24~25일에는 동해상에서 만들어진 눈구름대가 동풍을 타고 유입되면서 동해안지방에 많은 눈이 내렸음

사진으로 보는 기상청 소식



기상청장, 차장 사회복지시설 방문(2.4)

고윤화 기상청장과 정홍상 기상청 차장은 설 명절을 맞이하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인근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위로 및 성금을 전달하였다.

기상청은 신속하고 정확하며 가치 있는 기상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하여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롭게 변모하는 기상청의 살아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전합니다.

| 편집단



'계절기상정보 민간이양' 정책브리핑 시행(2.12)

기상청 출입 언론인을 대상으로 '계절기상정보 민간이양'에 관한 정책브리핑을 개최했다. 이번 정책브리핑을 통해 계절기상정보 민간이양에 대해 상세히 논의하는 시간이 되었다.



'가뭄정보 생산 기술현황 및 다부처 공동 대응 방안' 심포지엄 개최(2.17)

선제적 가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심포지엄이 관계부처(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기상청) 합동으로 개최되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별 가뭄정보 생산 기술현황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Photo News



기상관측 장비 현황에 대한 언론인 기상강좌 개최(2.17)

기상청 출입기자 및 기상캐스터, 리포터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기상 지식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기상관측 장비에 대한 언론인 기상강좌를 개최하였다. 이번 기상강좌에서는 지상·고층 기상관측 장비에 대한 소개와 상세한 설명으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언론인 정책탐방 개최(2.25~2.26)

기상청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2018년 동계올림픽이 개최되는 평창을 방문해 정책현장 탐방을 진행하였다. 이번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기상지원 현장을 탐방하며 소통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봄철 기상전망 및 향사에 대한 정책브리핑 개최(2.23)

언론과의 원활한 소통과 다양한 기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봄철 기상전망에 대한 정책브리핑'을 개최하였다. 올해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 경향을 보이며, 5월에는 고온 현상을 보일 때도 있다고 전망했다.



제8기 기상청 블로그 기자단 발대식 개최(2.25~2.26)

2016년 기상청 블로그를 이끌어 갈 '블로그 기자단 8기'의 발대식이 개최되었다. 이번 발대식은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개최되는 평창에서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여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기상의 가치를 다양한 시각으로 국민께 전할 기상청 블로그 기자단의 활약을 기대해본다.



독자마당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머리 좀 식히면 어떨까요? 「하늘사랑」도 읽고, 상품도 타고, 스트레스도 풀고~♪

퀴즈 참여 방법

퀴즈 정답은 3월 25일까지 전자우편(kmanews@korea.kr)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름·주소·우편번호·전화번호를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원고 기고 방법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원고 분량은 200자 원고지 15매 정도(아래한글 10point, 줄 간격 160%, A4용지 1장 반 정도)이고, 매월 20일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글과 관련된 사진이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채택된 외부기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상품이나 원고료를 드립니다.

Q&A

황사는 왜 나뉘는가?

황사는 사람의 건강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 황사 중 0.5~5.0 μ m 크기의 분진은 폐포에 들어가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며, 눈병이나 피부병 등도 유발한다. 또한, 식물에도 영향을 주어 농작물이나 활엽수의 기공을 막아 제대로 자라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황사의 더 큰 문제는, 최근 중국의 급속한 공업화로 인해 납·카드뮴·알루미늄·구리 등의 중금속과 발암물질 등 해로운 오염물질이 많이 포함된 채 날아와 우리나라의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것이다.

반도체 공장에서는 황사가 발생할 때면 공기 정화 필터를 자주 갈아 주어야 하므로 원가 상승은 물론, 불량품의 비율이 급격히 높아지는 등 생산성도 현저히 낮아진다. 또 황사의 미세한 먼지로 인해 정밀 전자장비 및 유도장비 등의 오작동도 유발할 수 있다. 항공기 제트기관의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오는가 하면, 시정 악화로 인한 야외 기동 제한 및 항공작전 중인 조종사로 하여금 비행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해를 입히는 황사도 일부 좋은 점이 있다. 황사의 성분이 알칼리성이라 산성비나 산성토양을 중화시키는 역할을 하며, 해양 플랑크톤에 무기염류를 제공하여 생물학적 생산성을 증대시키기도 한다. 또한, 송충이의 표면에 묻은 황사 입자가 송충이를 죽게 하니 소나무무서서는 고마울 수 있다. 그러나 역시 나쁜 점이 훨씬 많은 황사다.



QUIZ

1. 황사를 포함하여, 미세먼지, 안개, 연기, 화산재 등 대기 중에 떠 있는 고체나 액체 입자들을 가리키는 말로 온실가스와 더불어 기후변화 관측에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지는 것은?

- ① 라이다
- ② KALION
- ③ 공기민감지수
- ④ 에어로졸

2. 비염의 종류로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비구증
- ② 비용증
- ③ 비분증
- ④ 비강증

지난 달 퀴즈 정답

- 1. ② 영양예보
- 2. ① 탄소

지난 달 퀴즈 정답자

권기훈(경기), 김미애(대전),
노지혜(전주), 도기현(대구),
신승남(인천)

인사발령

내용	일자	소속	직급(직위)	성명
전보	2.12	강원지방기상청	기상사무관	김종광
교육 파견	2.15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고위공무원	김성균
		국립외교원	부이사관	김금란
		세종연구소	기술서기관	장근일

젊음특권 행복주택

2016년 1만호의 행복주택을 전국 곳곳에서 누려라!



젊음특권 행복주택, 전국 23곳에서 1만호가 공급됩니다!

서울지역

가좌역 / 상계장암 / 마천3 / 가양 / 신내3 / 천왕2
1,198호

경기지역

성남단대 / 고양삼송 / 화성동탄 / 안양관양 / 파주운정 /
의정부민락2 / 의정부호원 / 포천신읍
4,212호

인천지역

주안역 / 서창2
820호

충청지역

대전도안 / 충주첨단
478호

영남지역

대구혁신도시 /
대구테크노 / 김해진영
2,602호

호남지역

광주효천2 / 익산인화
1,514호



행복주택이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장이 가까운 곳에
저렴하게 공급하는 새로운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블로그 주소 <http://blog.naver.com/happyhouse2u>)

함께하는 안전점검! 함께가는 안전강국!

2016 국가안전대진단

2016년 2월 15일 ~ 4월 30일

민관합동 점검

함께 참여하는 안전신고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안전신문고

진단 주체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민간전문가 참여)

점검 대상 안전사각지대, 위험시설,
안전신고 대상 등

점검 방법 민관합동점검,
국민은 안전신문고 웹(www.safepeople.go.kr)
또는 앱을 통해 참여